

2018년 8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8.8.31.(목) 정오 12:00

■ 주요 회의 내용

▲ 보도의 공정성, 심층성, 중립성 제고

- 9일 뉴스19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제하의 프로그램에서 서춘수 함양 군수의 인터뷰를 약 15분 정도 방영함. 동 인터뷰 프로그램은 지자체 행정에 대한 비판적 질문 보다는 지역주민 이외에는 관심을 갖기 어려운 홍보 성격의 내용이 중심이었는데,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 홍보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 모든 지자체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느낌이었으며,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였음(오준 위원장)
- 안희정 1심 재판부 무죄 판결과 이후의 사태 전개에 대한 보도를 보면 15일 안희정 무죄에 분노한 여성들, 대규모 집회 예고, 18일 안희정도 법원도 유죄다, 도심서 여성 규탄집회, 19일 뉴스초점. 안희정 무죄 거센 후폭풍, 집회의 의미는? 진단 프로그램에선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부실한 판결과 입법 미비점, 이밖에도 “여성의원들 ‘안희정 무죄’ 성토”, “비동의 간음죄 도입해야” “안희정 무죄는 국회 탓? 잠자던 미투법안 논의 재개” 등 많은 기사를 쏟아냈음. 기사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꽤나 편향적임.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인데 한쪽 당사자의 입장만을 집요하게 보도했음. “여성단체 ‘사법부 유죄’ 강력 반발, 미투 역고소 논란”이라는 보도에서 이렇게 언급했음. “이들(피의자 혹은 피고발인)의 역고소에 따른 2차 피해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해도,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법적인 구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사법부에 피해 구제를 요청한 것을 2차 가해로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를 부정하는 행위임. 게다가 구속된 김기덕과 달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고은을 동일선상에 놓고 2차 가해인 양 보도하는 건 심했음.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발언이 있었음. 노영희 변호사(연합뉴스티브이 시청자위원)가 15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한 말임. “김지은씨의 언행이 불일치하다. 이게 사실 (1심 재판부 판결의) 핵심이다.” “(김지은씨가) 말로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로서 취해야 할 행동이 사실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건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요즘 상황에선 웬만큼 용기를 내지 않고는 하기 힘든 발언이었음. 연합뉴스티브이 가까이에도 이런 시각과 의견이 있음. 왜 이런 시각은 외면하는가. 한 편에 휩쓸려 함께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사실을 추적해야함 무죄추정의 원칙은 검찰 법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언론 보도에는 더 철저하게 적용돼야 함(곽병찬 위원)

- 언론은 속보만 쫓다보면 본의 아니게 가해자 노릇을 하게 됨. 연합뉴스는 김경수 댓글조작 공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이란 범죄자의 입에 의존한 속보를 이어왔음. 어느 방송 못지않게 많은 기사를 보도했음. 특검의 수사 발표도 했으니 이제는 그동안 보도들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을 보여줄 때가 됐음. 어떤 내용을 보도했고, 어떤 보도가 잘못됐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음.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온 범죄 혐의자의 입에 의존하다가 무고한 사람을 가해한 것은 없는지 따져봐야 함. 김경수는 공인이기 전에 인격과 존엄을 지킬 권리가 있는 개인임(곽병찬 위원)
-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된 뉴스 보도는 단순히 그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보다는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나 배경에 대한 분석적 보도가 중요하게 보이는데 8월 14일 한강에서 발생한 전복 사고의 경우 하류 지역에 수중보가 있고 사고 당시 예고 없이 보를 개방하여 물을 내려 보내면서 갑자기 소용돌이가 발생하여 빚어진 사고로 알려 졌음.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일 뉴스에서 와류 발생 등 한강 소방관 전복 익사 사고의 원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됨(최신용 위원)
- 폭염 관련 정신건강 관련 보도는 비교적 시의적절하고 내용도 충실하였으며 결핵 검진 관련 보도도 좋았음. 그런데, 기록적인 폭염 관련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보도가 적었던 것은 아쉬웠음(하규섭 위원)
- 출발 640 시청자들에게 라이브 투데이도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됨. 다들 거라는 기대감을 주어야 함. 중요도 낮은 뉴스는 과감히 제거하고, 몇 가지 이슈 중심으로 다각, 심층 보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이경상 위원)
- 경제 정책을 둘러싼 청와대 정책실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간의 갈등설을 다룬 여의도 풍향계는 실제 없는 설들을 잘 정리하여 갈등설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한 것 같음. 정부의 차관급 인사와 관련하여서는 통계청장 교체의 정당성에 대한 당국의 일방적 해명만 보도한 점은 인사의 배경에 대한 취재가 부족한 듯 하며,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사건 보도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앵커가 의혹이라는 표현을 생략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건 중립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임(최신용 위원)

▲ 보도시 주의사항 및 보도의 가치 고민해야

- 노회찬 사망보도 구급차 추격 생방송 논란(7.23). 시청률 경쟁에 집착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음. OECD 자살률 2위국가로서 자살 사망 보도는 모방심리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함. 기사선택과 용어사용, 신중한 자유킴의, 데스크가 중요함(내부 매뉴얼 마련). 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요망함(권영후 부위원장)

- 비록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8일 발생한 총기사고 보도를 15일에 한 것은 신속한 보도가 생명인 뉴스의 본질을 훼손한 것 같음(최신용 위원)
- 라오스댐 붕괴와 관련한 뉴스현장에서, 변호사 한 사람을 출연시켜 질의. 답변하는 것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변호사는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얘기하고, 기술적이거나 사회적인 부분은 다른 전문가가 함께 출연하여 얘기해야 할 것임. 출연자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제되지 못한 발언이 무의식중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주의할 사항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음(김석민 위원)
- 사건. 사고에 관한 뉴스 관련하여, 아나운서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누군가가 잘못하여 사고가 일어난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음.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말의 뉘앙스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시청자들이 단정하게 하는 식의 보도는 지양해야 함. 특히 라오스댐 붕괴와 같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경우,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듯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봄. 독일 언론이 한국에서의 BMW 화재사태에 입닫고 있다는 사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김석민 위원)
- 다른 방송사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방송에서 했던 일기예보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얘기가 많고 특히 22일, 23일 이즈음에 방송되었던 내용이 타 방송사나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한 일기예보에 비추어 오류가 크다는 평이었음. 특히 보도의 신뢰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중시하는 방송사의 특징에 비추어 앞으로 주의가 필요해보임(노영희 위원)
- 사생활을 파는 김부선 뉴스 왜 그리 많은지 이 사안의 핵심은 '애인이었다' '아니다' 싸움이다. 이런 사안이 공익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함. 남의 사생활 듣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음. 그런 사생활 팔이에 나서는 사람들의 기이한 얼굴이나 이름 석 자를 화면에서 보고 싶지도 않음. 21일 김부선이 경찰에 출석한다고 예고하는 기사까지 보도했음. "이재명 스캔들' 김부선, 내일 경찰 출석" 자막 뉴스로도 계속 뒀음. 이재명과 김부선이 애인 관계였는지 아닌지가 얼마나 중요한 뉴스이길래 예고기사까지 계속 내야 했을까함(곽병찬 위원)
- 이산가족 상봉 적극적인 보도 아쉬웠음. 1차 상봉 때 금강산으로 떠나기 앞서 속초 숙소에서 설레던 이들을 화면으로 보고 싶었다. 어떤 분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음. 경쟁사나 제이티비씨 등에서 그런 뉴스를 소상히 보여줬지만, 연합뉴스티브이는 버스가 떠날 때에야 화면을 보내기 시작했음. 다른 방송이 속초 현지의 모습을 보여줄 때 연합뉴스티브이가 보도한 뉴스는 대부분 전날부터 계속 보여주던 것들이었음. 어쩌면 그 시간 가장 중요한 뉴스는 빼 버리고 뉴스도 아닌 구문을 반복해서 틀어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음.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음. 금강산에서 전달되는 관련 뉴스는 모두 공동취재단이 보내온 것이었음. 연합뉴스티브이는 양적으로도 소홀했고, 재구성 등의 노력도 없어 감동도 재미도 주지 못했음. 왜 그랬는지 데스크의 판단을 듣고 싶었음(곽병찬 위원)

- 지난 해 12월 아랍에미레이트 특사 파견과 관련해 특정 언론과 정치권이 허무맹랑한 보도와 의혹을 쏟아내고, 공세를 벌여 한 달여 동안 한국 정치가 혼란에 빠졌음. 그러나 드러난 진상은 전 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덮기 위한 것이었음.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빚어진 국가적 혼란에 대해선 누가 책임져야 하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매체 하나도 없음. 앞장서 문제를 제기한 매체는 감시견이 아니라 살인견 노릇을 했음.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뒤에라도 바로잡는 노력이 없다면, 이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음. 연합뉴스티브이라도 저널리즘의 원칙을 충실히 지켜, 언론의 횡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바람(곽병찬 위원)

▲ 프로그램 기획, 제작 의견

- 4일 오후 7:30 방영된 미니다큐 “아름다운 사람들 - 나는 자랑스런 소방장이다”를 포함한 미니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독립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작품으로서의 제작 수준을 좀 더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현재로서는 독자적 다큐멘터리 작품이라기보다는 뉴스 프로그램 중 특집 집중보도 성격으로 보여짐(오준 위원장)
- 정부 통계 발표관련 적극적 설명과 논쟁의 장 제공 필요함.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계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관련 학계 인사, 통계전문가, 통계 담당 공무원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이 필요함(권영후 부위원장)
- 핫 이슈 관련 SNS 상에 넘치는 가짜뉴스 문제 관련 가짜뉴스 대응, 진위 판별법 등 소개 코너를 신설 운영할 필요가 있음(권영후 부위원장)
- 최저임금, 규제혁신, 경제민주화, 52시간 노동시간제, 폭염 전력문제, 국민연금 관련 사실보도, 나열식 소극 보도로 일관하고 해설 분석기사가 보이지 않음. 최근 KBS ‘명견만리’처럼 핫 이슈를 적극 소개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검토하길 바람(권영후 부위원장)
- 광고가 나오기 전에 광고주 리스트 송출화면이 먼저 나오는데 한 컷, 두 컷까지는 자연스러운데 세 컷, 네 컷, 다섯 컷까지 계속 나오면서 렉 느낌이 고조됨. 시청자들에게 채널 바꿀 타임을 제공하는 셈이 되어 광고주 입장에서도 마이너스임. 자막이 3줄씩인데 5줄로 늘려 신속하게 넘기거나... 아예 광고화면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일 것임(이경상 위원)
- ‘라이브투데이’는 모닝 와이와 출발 640에서 다루었던 뉴스들이 그대로 반복됨. 아침 시청 텀을 6시 ~ 8시 30분 정도로 가정한다면 같은 뉴스를 4번 이상 반복해서 보는 것 같음. 다른 뉴스가 추가되거나, 처음 보도와 다른 포인트가 가미되지 않으면 불편하고, 불쾌한 느낌을 유발할 수 있음(이경상 위원)

▲ 앵커, 작가, 자막 관련 의견

- 앵커들이 뉴스를 전달하는 전달자에 그치고, 화제를 던지는 방식도 단조로운 경향이 있음. 연합뉴스TV는 뉴스전문이므로 뉴스앵커의 역할이 중요하며, 스타 앵

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시청자를 위해 뉴스의 의미를 짚어주고, 시청자의 공감을 끌어냈으면 하며, 촌평이나 애드립을 통해 시청자와 호흡을 같이 했으면 함. 앵커가 이런 역할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잡다한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줘야 함. 직접 리포팅까지 하는 사례가 남아 있는데, 작은 기사들은 말미에 포토뉴스처럼 기타 뉴스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음(이경상 위원)

- 앵커를 뒷받침하는 작가의 역할이 중요함. 현장기자가 할 말까지 스크립트에 넣다 보니 앵커의 말이 많아지고, 현장기자의 리포팅과 중복감을 낳고 있음. 뉴스 포인트를 짚고, 관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스크립트를 만들어줘야 함. 그러면 현장 기자의 보도와 맞물려 생동감이 높아질 것임(이경상 위원)
- 자막에 제목 같은 내용을 넣기보다 내용 전달 위주의 간략하고 정확한 표현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음(예: 일본 수도권, 태풍 '산산' 걱정에 '벌벌'). 띄어쓰기, 콤마 사용 등에 관심을 가져 정확한 표현이 되도록 해야 함. 시류적인 표현의 사용에 주의가 필요함(김석민 위원)

▲ 긍정 및 기타 의견

- 2일 저녁 8시 뉴스 등 일부 방송에 수화 통역을 도입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시도로 보이며, 앞으로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오준 위원장)
- 기상전문기자를 초대해 궁금증을 살펴본다든지, 홍영표 원내대표 모두발언을 연결해 생중계하는 뉴스속보가 현장감 있어 좋았음(이경상 위원)
- 디지털,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으로 인해 언론매체에게 가장 중요하게 부각된 과제가 독자 및 시청자와의 소통임. 이제는 시청자들이 제보나 댓글 등을 통해 뉴스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저널리즘, 협업저널리즘이 새로운 뉴스 생산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런 점에서 연합뉴스TV는 시청자 또는 시민과의 소통에 너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뉴스 제보를 접수해 처리하는 시스템이 형식적이고 경쟁 언론사에 비해 많이 뒤떨어지는 편임. 지상파나 종편, 심지어 경쟁사에도 시청자들이 뉴스가 될 수 있는 내용과 영상 등을 자발적으로, 편리하고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음. 이들은 기사제보 배너를 잘 보이는 위치에 크게 표시하고, 이메일 뿐 아니라 직통전화, SNS, 별도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하고, 용량이 큰 동영상도 올릴 수 있도록 웹하드를 제공하기도 함. 제보자에게는 약간의 사례금이나 기념품까지 주며 제보를 독려하는 방송사들도 꽤 있음(각 방송사 제보란을 비교해보기 바람). 그러나 연합뉴스TV 기사제보를 클릭하면 내용을 적고 파일로 첨부하는 것이 전부다. 방송에서 가끔 카톡 같은 SNS 제보를 홍보하기도 하는데 정작 제보 페이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음. 시청자와의 소통과 참여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제보는 언론사들이 별다른 노력과 비용투자 없이도 뉴스가치가 높은 기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취재수단임. 타방송사들이 요즘처럼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

한 피해가 많을 때, 일상적인 사건사고 기사 등에서 시청자들이 보내준 현장감 넘치는 제보영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임. 그런데도 제보접수에 이렇게 소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시청자게시판 관리는 더욱 문제가 많음. 이 게시판은 과연 내부 관리자들이 한 번이라도 들여다 본 적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방치되어 있음. 소수의 시청자들이 게시판을 독점하다시피 해 자기 낙서장처럼 이용하고 있음. 내용도 프로그램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은 찾아보기 어렵고, 일방적인 자기주장과 욕설, 특정 아나운서에 대한 성희롱에 가까운 글이 난무함. 이는 게시판을 악용하는 시청자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아예 관리를 포기한 것처럼 손을 놓고 있는 언론사 잘못이 더 큼. 시청자의 의견은 중시되어야 하지만 욕설과 성희롱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임. 지금처럼 저열하게 관리되는 게시판은 언론사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뿐 아니라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시청자의 참여도 막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기에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배정근 위원)

- '출발 640'은 수도권에서 기사가 팔팔 쏟아지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뉴스보다는 파지 쓰레기가 쏟아지는 느낌임. 다른 화면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함(이경상 위원)
- 다른 방송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유독 연합뉴스티브이 시청자 게시판에는 '성서현'이라는 사람 한 명이 도배를 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오는 의견에 대해 관리자 측에서 답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의견에 대한 답이 따로 달리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음. 시청자 게시판의 기능이 시청자와 방송사간 커뮤니케이션 창구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 명이 지나치게 많은 의견'을 연신 올리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방송사의 답변이나, 시청자 의견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반영되기도 하는지 아니면 무시되는지 등등) 확인이 필요해보임. 시청자 게시판을 잘 이용하는 것도 필요해보임(노영희 위원)

(끝).